13차시
루브르 미술관에서 배우는 인적자원관리

학습 내용

1. 인류문화의 백과사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파업
2. 사람에 대한 생각들
3. 직원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다

1. 인류문화의 백과사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파업

- 파리 중심가에 있는 루브르 미술관은 **과거 프랑스 왕가의 미술품을 소장, 전시하기 위해 건립된 것**으로 몇 차례 크고 작은 증개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, 규모로 성장해 왔으며, 현재 세계 3대 미술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.

- 소장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숫자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,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**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인류 문화예술의 걸작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**하다. 그만큼 미술관을 지키고, 소장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기로도 악명이 높다.

- 그간 수 차례의 파업과 내부 구성원들이 공모한 절도사건의 발생 등 여러 가지 **'사람'에 의한 문제가 발생**되어 왔으며, 그 중 몇 번은 미술관 운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대형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다. 그러나,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.

2. 사람에 대한 생각들

- 과거 우리는 **생산의 3 요소를 토지, 노동, 자본**이라 말해왔다. 과거 때로는 '노동은 자본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'이라 생각하여 토지나 자본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했었다. 하지만,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견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, 노동, 즉 **일하는 직원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인식하는 경향**이 있다.

- 기술이 중시되고, 기술력만 있으면 토지와 자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**앞으로도 노동, 사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점점 더 커질 것**이다.

3. 직원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다

- 노동,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함에 따라, 각 기업, 조직에서는 **좋은 사람 찾기에 골몰**하고 있으며, 내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**'내부고객'**으로 칭하고 **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**들을 하고 있다.